

총선 D-29 민주 '합중연횡' 지역 정치권 요동

“탈락후보 잡자” 생존 후보들 경쟁 치열

공심위 영향·막판 공천 유리한 고지 선점

호남 이르면 12일 일부 공천 확정자 발표

통합민주당이 광주·전남 등 호남 지역 예비후보들을 2~4배수 압축하고 공천의 기준이 되는 여론조사를 마무리 지음에 따라 지역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일단 압축 후보군에 탈락한 예비후보들은 공심위의 후보 압축 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탈락 예비후보들과의 합중연횡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등 공천 가도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압축 후보들의 경쟁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무소속 출마도 불사”=공심위의 1차 컷-오프에 탈락한 후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당장 서구 을 정홍호, 남구 이순재, 광산 갑 송병태, 광산을 민형배 예비후보 등은 공심위의 압축 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며 중앙당 등에 강력 항의하는 한편 재심 신청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예비후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11일 공천 심사 접수 공개를 요구하는 등 입장 표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다른 탈락 예비후보들은 무소속 출마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남구의 김화진 예비후보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여론 지지를 상위인 나를 배제한 것은 현역의원을 밀어주기 위한 의도”라며 “공정한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소속 출마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에서도 후보 압축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담양·곡성·구례의 국경근 전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남·진도·완도의 최시영 후보는 11일 재심 청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합중연횡 파괴력은=1차 컷-오프를 통과한 예비후보들은 탈락 후보들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현역의원이 교체되는 지역의 경우, 합중연횡에 따라 막판 공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세 과시 등을 통해 공심위의 최종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한편, 만약의 경우 무소속 출마의 기반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합중연횡의 파괴력은 미지수다. 합중연회의 결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당장 통합민주당의 공천 심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합중연횡이 제대로 갖춰지기 전에 공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회의적이라는 견해다.

◇향후 공천 일정=통합민주당은 10일 호남을 제외한 수도권 등 여타 지역에 대한 1차 공천자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민주당 공천심사위는 최대 관심 지역인 호남권의 경우 2차 심사와 지역구에 따라 여론조사 경선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2일 1, 2위 예비후보 간 격차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공천 확정자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심사위 박경철 후보간사는 10일 브리핑을 통해 “호남은 2차 심사가 끝나야 하고 경우에 따라 경선까지 가는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 내일은 어렵고, 모레나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광산구청 공무원 선거 중립 선언 광산구청 공무원 300여명이 10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국 최초로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한마음 결의대회'를 갖고 선거 중립을 선언하고 있다. 구청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결의문 채택, 공직선거법과 메니페스토 운동 등에 대한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공심위도 '코드 공천'?

호남 1차 압축자 “동학 계보” 상당수

병형 정책자문단) 후보 등이다. 이에 대해 당 일각에서는 일부 공심위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박재승 공심위원장이 동학재단 이사장 공심위원인 이이화씨는 동학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공심위원인 김근 전 연합뉴스 사장은 소병훈 후보의 정책자문단장을 맡고 있다.

는 무스개 소리가 들릴 정도다. 특히 전주 완산갑에 출마한 이무영 예비후보 후원회는 “K 후보는 두 명의 공심위원과 동학 기념재단에서 같이 활동했기 때문에 매우 가까운 사이며 또 한 명의 공심위원과는 한 예비후보의 정책자문단에서 함께 활동했다”며 “공심위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씨, N씨 등에 대해서도 ‘외부 공심위원과 코드가 맞아 선정됐다’는 등 당 내외에는 각종 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 북갑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는 “1차 압축 명단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며 “외부 공심위원들이 주관적인 잣대로 후보들을 평가, 불공정한 심사가 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 핵심 관계자는 “공심위원들이 개인적 인연을 가진 예비후보들이 한 둘 이겠느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 같은 논란이 확산하자 정경환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같은 조직이나 모임 등 인연이 깊은 경우 종합 심사 평가에서 해당 공심위원의 평가 자료는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 수도권 등 1차 공천 발표

통합민주당은 10일 호남을 제외한 수도권 등 비경합 지역 등에 대한 1차 공천자 55명을 내정, 개별 통보했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 노원구를 우원식 ▲은평구갑 이미경 ▲강서구갑 신기남 ▲구로구갑 이인영 ▲동작구갑 전병현 ▲부산 영도구 김비오 ▲북구갑 서구갑 전재수 ▲사하구를 조경태 ▲인천 남구갑 윤희우 ▲연수구 문영철 ▲부평구갑 문병호 ▲계양구갑 신학용 ▲계양구를 송영길 ▲대전 동구 선병렬 ▲대전 서구갑 박병석 ▲수원 권선구 이기우 ▲수원 영통구 김진표 ▲의정부갑 문희상 ▲의정부를 강성종 ▲안양만안구 이종걸 ▲안양 동안구를 이정국 ▲부천원미구를 배기선 ▲광명시를 양기대 ▲평택시갑 우재항 ▲평택시를 정장선 ▲양주·동두천 정성

호 ▲고양시 일산동구 한명숙 ▲고양시 일산서구 김현미 ▲구리시 윤호중 ▲남양주시갑 최재성 ▲오산시 안민석 ▲하남시 문학진 ▲용인시 처인구 우재창 ▲용인시 수지구 김종희 ▲포천시 연천구 장명재 ▲춘천시 최윤 ▲강릉시 홍준일 ▲동해·삼척시 한호연 ▲속초·고성·양양 이동기 ▲홍천·횡성 조일현 ▲청주 상당구 홍재형 ▲청주 흥덕을 노영민 ▲충주 황덕을 이시종 ▲청원구 변재일 ▲증평·진천·괴산·음성 김중률 ▲천안시갑 양승조 ▲보령·서천 조이환 ▲아산시 ▲서산·태안 문석호 ▲포항시 북구 ▲포항시 남구·울릉군 허대만 ▲창원시를 구병희 ▲김해시를 최철국 ▲의령·함안·합천 류영태 ▲제주시를 김우남

민주 지도부-공심위 힘겨루기 재연 되나

비례대표 및 전략공천 심사를 앞두고 통합민주당 지도부와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 간 힘겨루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현역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되거나 당세가 약한 지역, 신형 후보가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20개 이내 범위에서 전략공천 지역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또 오는 17일께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공모에 들어

경우 원칙적으로 불출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 이 같은 조항 설치를 두고 당 지도부와 박 위원장 간에 이견이 적지 않았으나 박 위원장이 공천 과정의 독립성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관철해왔다. 당장 당 지도부 사이에서는 비리 전례 배제 기준에 걸려 '억울하게' 탈락한 일부 인사들을 비례대표나 전략공천으로 돌려 구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박 위원장은 "전략공천이든 비례대표든 국민의 마음을 최고의 가치로 해야 하는 만큼,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지도부, 탈락인사 비례대표·전략공천 거론

박재승 위원장 "상상할 수 없는 일" 일축

갈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통합 후 공천 관련 당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공심위원장이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심사위원장을 겸임하는 한편 비례대표와 지역구 전략공천도 두 공동대표가 위원장과 '합의'를 거치도록 하면서 양측 간 충돌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동안 비례대표나 전략공천 문제는 당 지도부가 주도적으로 해온 게 관례였으나 이번에는 박 위원장이 특유의 강단으로 제동을 걸

또 당 주변에 선 선 대표와 박 대표 측이 이미 열두에 두고 있는 비례대표 추천명단이 있다는 미확인 소문이 돌면서 계파 나눠먹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박 위원장은 "계파안배는 절대 안 된다"는 원칙으로 맞서고 있다. 당규상 비례대표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공동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돼 있지만 추천위원장을 겸임한 박 위원장의 신경전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dvertisement for 'Hwangsan Jangjae' (Hwasan Mountain Festival) featuring a scenic background of mountains and a table of ticket prices for various packages. The table lists packages like 'Hwasan Jangjae' and 'Hwasan Jangjae' with prices ranging from 40,000 to 100,000. Contact information for '모두투어' is provided at the bottom.